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보험사에 '자릿세 장사'

### 특정 보험회사와 1년 1200만원 편법 임대 계약 연수원 교육자 대상 보험상품 영업 대관 규정 위반...광주시 뒤늦게 사태파악 나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규정에도 없는 홍보 자릿세를 받고 특정 보험사에 연수원 로비를 불법 임대, 수익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운수종사자들의 편의 시설로 이용돼야 할 로비를 상업 시설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 것이다. 3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정영식·이

하 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A화재보험회사와 대강당 앞 로비 공간(약 3평)을 1년간 1200만원에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보험사는 광주지역 교통 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교육 장소인 연수원 대강당 로비에서 보험상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지

난해 기준으로 연수원에서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은 광주지역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종사자는 1만8248명(신규 1120명, 보수 1만7128명)에 이른다. 3일에도 A보험사 관계자들은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개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A보험사 관계자들이 "연수원과 단독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다른 금융회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시 경영진단평가에서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어 임대 사업 계획을 세워 내린 조치"라며 "임대료는

연수원 수익금으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 정관 6조에 나온 '연수원 시설은 임대 및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다는 것이 연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6조의 부칙으로 만들어진 '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임대 및 대여 범위를 '예식장 및 각종 회의·교육, 문화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관 범위도 강당, 대강당, 소강의실, 주차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

으로 한 보험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연수원 관계자는 "정관과 관련 규정이 맞지 않아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의 말대로라면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없이 임대 사업을 해온 것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곧장 환급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200억원을 들여 지난 1월 재개관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대강당, 중강당, 컨벤션홀 등을 갖추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800명에 굴비·현금 돌린 광주지역 농협 조합장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장석 부장판사는 3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800여명에게 굴비와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A(61)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농협 관계자 B(58)씨와 C(7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적이고 깨끗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설 명절 때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지역 조합원 800여 명에게 굴비와 생일케이크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 등과 함께 차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1700명의 명단을 빼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지지하거나 중립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굴비를 선물했으며, B씨 등은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지역 조합장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여객선 늘려달라" 거문도 주민들 대통령에 탄원서

거문도를 비롯한 여수시 삼산면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거문도간 여객선이 2척에서 1척으로 줄어 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3일 삼산면 지역발전위원회 임석희 위원장 등 주민 465명은 최근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거문도, 손죽도, 초도 등 3개 섬으로 형성된 삼산면 주민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객선"이라며 "세월호 사고 이전처럼 여객선 2척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여수~거문도 항로에는 2개 선사가 여객선 2척을 투입해 운항해 왔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정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서 나머지 1개 선사인 오션호프해운(주)의 줄리아아쿠아호 1척만 운항하고 있다. 이마저도 현재 줄리아아쿠아호가 결항이 잦아 주민 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여수해양수산청이 섬 주민 불편을 줄이려고 새로운 선사 공모를 지난해부터 4차례나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도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여수해수청이 새 해운법에 따라 선사를 찾기 때문에 희망업체는 물론 적격업체마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농민회는 3일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에서 쌀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쌀포대를 쌓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정부에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수확한 벼를 야적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쌀값 폭락 '성난 농민' 동시다발 벼 야적 시위

### 전남 8개 시·군서...14일엔 1만여명 상경투쟁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나라 야적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이는 등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담양·화순·나주·영암·해남·진도·장흥·함평 농민회는 이날 각 지역 시·군청 앞에서 최근 수확한 나락을 쌓고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해남군농민회는 지역별 면사무소에 40

kg들이 벼 3만 포대를, 나주시농민회는 나주시청 앞에서 3000포대를 쌓고 시위에 들어갔다. 장흥군청에는 800kg들이 대형 벼가마 200개, 담양군청에는 60개, 화순·함평군청에도 각각 20개가 야적됐다. 영암군농민회도 농협 영광군지부 앞에 대형(800kg) 벼가마 50개를 쌓았다. 또 영광군농민회는 5일부터, 광주농민회와 강진군농민회는 오는 9일 나라 야적 시위에 동참한다.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총궐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버스 300여대를 동원, 1만여명이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쌀 개방 농정으로 농민단 고통받고 있다"며 "쌀값 폭락의 주범 저가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비축미 100만 확대와 재고미 40만 북반 보내기도 촉구했다. 앞서 수입쌀과 풍년 농사로 벼값이 20% 이상 폭락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

### 흠신 신용카드 쓰다 '덜미'

○...부산발 광주행 고속버스에 탄 30대 남성이 앞좌석의 여성이 잠들자 지갑을 훔친 뒤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긁었다가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38)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여대생 김모(21)씨가 졸고 있는 틈을 타 6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든 신용카드도 8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할 혐의(절도 등). ○...잠에서 깨어난 김씨로부터 "혹시 제 지갑 못 보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발뺌한 뒤 태연히 종적을 감춘 장씨는 흠신 신용카드로 14차례에 걸쳐 버스 승차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환불받으려다 좌절당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 1층 단독 주택, 2012년 준공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5500만원

###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 수기동,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16층
- 29평, 주거겸 사무실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일시불 매매가-5700만원

# 경매투자자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상담문의  
**H.010-3605-5000**

###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 보성, 임야 지분

- 보성군 북내면 계산리 산81-1 외 5
- 13만평중 지분 26000평
- 인도접하고 완경사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1억(조정가)

### 금호동,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4면유리
- 용 3억 6천만원,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 - 5억 6천만원